

역사주의 비평의 힘

「한국근대문학비평사 연구」

폭넓은 의미에서 문학비평이란 문학에 관련된 모든 논의를 포괄한다. 흔히 비평을 문학에 대한 이론적 究討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비평과 구체적인 작품을 분석하는 실제비평으로 대별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 및 형식은 문학적 상황의 성격이나 문학운동의 전개방식에 따라 어느 정도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문학비평사는 이러한 문학비평을 史的으로 기술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문학비평적이면서 동시에 역사적이어야 한다는 이중적 의미와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다. 즉 문학비평사의 記述은, 문학비평의 형태와 방법이 시대변천에 따라 어떻게 변모되며, 또 그 변모는 역사발전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출간된 「한국근대문학비평사 연구」(이선영 외, 세계, '89)는 위에서 말한 비평사에 대한 원론적인 기준들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저서이다. 이 책이 기왕에 출간된 문학비평사와 다른 점은 (다르다는 말보다는 '더욱 비중을 둔 점'이라고 해야 정확하겠지만) 첫째, 당대의 시대정신과 사상에 대한 깊이있는 洞察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것의 문학적 반영인 작품들의 의미를 '통시적으로' 규명해 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 책은 전통적 비평의 이월가치들이 어떻게 현대비평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극복되는가를 소상하게 보여준다. 즉, 이 책의 한 저자는 한국문학사의 오랜 쟁점인 근대의 起點 논의를 '근대'라는 개념의 사회사상적 해명에서부터 출발하여 다시금 정리하고,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근대문학'의 개념을 추찰해 간다.

셋째, 이 책에는 아직도 한국 비평의 구도를 일정하게 틀짓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한국

적 수용과정과 형성·발전을 사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가지 비평적 문제들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여기에는 그 시대의 사상사적 관계와 비평사적 맥락이 당연히 고려되어 있다. 다시 말해, 30년대 리얼리즘의 경우, 당시 사상사의 두 계통인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연관시켜 변증법적·사회주의적·비판적 세 유형으로 분류·논증했으며, 모더니즘에 대한 연구의 경우 (김기림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는, 그 모더니즘의 특징과 한계를 리얼리즘적 시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모더니즘이 문학의 전위성·현대성의 추구라는 점에서 한국 詩문학사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지나친 探新主義에 의한 과거 한국시의 전면부정과 공허한 관념적 세계주의에 의한 현실도피적 허위의식은 비판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입장이다.

이와 같이 이 책은 기왕의 한국문학비평사가 간과했거나 미진했던 부분을 주로 다룬 연구논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마도 이러한 점이 이 책을 다른 저서들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변별적 특성일 것이다.

다만 한가지 서로 다른 필자의 논문들로 이루어져 있음으로 발견되는 내용의 중복이 혹은 몇몇 상이점들이 이 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겠지만,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있는 저자들이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의식의 공통성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문제점은 이 책의 의미를 거의 손상시키지 않는다.

문계봉

중앙대 대학원 문예창작과 석사과정

만물속에 내재한 수학적 원리

金容雲의 「人間學으로서의 數學」

老子의 「道德經」에 만물은 無에서 나오고 無는 道에서 나왔다는 구절이 있다. 즉, 道란 만물 속에 흩어져 있어 어떤 사물 속에서도 道의 부분을 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道可道非可道」라 했으니 道가 무엇이나 하는 문제는 따지지 않기로 하고, 그 道를 수학적 보편원리로 치환해 본다면 「인간학으로서의 수학」(金容雲, 祐成文化社)에서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알 수 있다. 즉, 수학이나 과학뿐만 아니라 철학·문학·음악·미술 등 인간생활의 모든 행위에 수학적 보편원리가 내재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을 규명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저자에 의하면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음악과 美를 감상하고 그 속에 내재하는 보편적인 數理를 발견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무의식 세계에는 수리적 인식과 관련 있는 공통적인 美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맥락에서 수학과 과학의 역사적 흐름과 동서양 수학의 비교, 나아가 철학·종교·문학·예술·세계관·우주관·초능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놀라운 것은 수학자인 저자가 자기 전공 밖의 다른 분야를 다룬 것이 단순히 인용 정도의 차원에 그친 것이 아니고, 그 방면의 전문가의 맹점을 찌르는 예리한 분석과 해설을 했다는 점이다. 특히 李箱과 에드가 앨런 포의 작품 분석은 순수한 문학평론가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독특한 면모를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 대가의 작품에는 수학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셰익스피어의 비극과 T.S. 엘리엇의 詩를 이야기하고, 김삿갓의 漢詩와 周易, 철학자들의 세계관과 우주관까지 망라하여 동서고금의 文科와 理科를 통합해 놓은 듯한 체계를 볼 수 있다.

동양의 수학이 서양에 비하여 발달하지

못한 원인을, "서양에서는 존재론의 문제에서 수학이 발달한 데 비해 동양에서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근사해법을 얻는 데만 만족했을 뿐 존재정리의 문제를 도외시한 때문"이라고 했다. 즉, 서양에서는 理想추구의 경향이 강한 데 비해 동양에서는 현실적인 유용성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양쪽의 문화를 비교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수귀문도를 만들어내는 절묘한 수의 감각을 지니면서도 한국 전통수학에서는 수의 본질을 규명하는 整數論의 발달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주목할 것은 저자가 만물 속에 내재하는 수학적 원리를 찾으면서도 수학이나 과학의 한계성을 책의 전편에 걸쳐 지적한 점이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와 발견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등을 소개하면서 과학과 인간이성의 한계성을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과학의 대중화를 부르짖는 오늘날, 외국에서는 아시모프나 칼 세이건과 같은 대가들이 많이 나와 활약함에도 국내 과학계에서는 그 업적이 극히 미미하였다. 저자는 오늘날의 교육풍토를 文科와 理科로 분리하여 '전문 바보'를 양산하는 체제라고 개탄하였지만, 스스로는 이 책을 통해서 지식인의 올바른 학문자세를 보여준 셈이다.

李忠昊

동아출판사 편집국

열린채널

천재시인 마야코프스키의 長詩 두 편 완역 / 내가 아는 한 노동자

소련현대시집

소련 현대의 현명시인 **마야코프스키** 이득재 옮김 • 값 2,000원

739-8173 / 738-7340

무엇을 할 것인가

스탈린과 소련 젊은 대학생들의 초상 / 당과 지바고를 능가하는 강변의 대작

3,000원 / 값 3,000원

신화제작

체르니셰프스키 장편소설 서정록 옮김 / 레닌을 기리는 킨리시야 최초의 사회주의 이상소설

3,500원

아르바당의 아이들 아나톨리 리바코프 옮김 / 홍지영, 이근수 옮김

소련 현대의 베스트셀러 6백만부 돌파

모나히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간음, 낙태, 음모, 협잡, 탐욕... 수도사가 귀부인을 농락하고, 수녀가 갓낳은 아기를 우물 속에 빠뜨리는 사건만이 내용의 전부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벨로바쉬프 수도원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패륜을 통해 오늘의 현실을 돌아볼 뿐입니다. 종교를 모독하기 위한 책은 결코 아닙니다. ★ '모나히'는 러시아어로 '수도사'를 뜻합니다.

갈리니코프 장편소설 • 신국판/404면/값 3,800원

종교와 신화 속의 神과 영웅

조셉 캠벨의 「세계의 영웅신화」

스스로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들이 그 삶의 한계성에 모질게 대항하여 추출해낸 정신세계의 한 극점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신화와 종교이다.

인간은 자신이 가질 수 없는 많은 것들을 神이라는 이름, 혹은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주인을 삼아 그 세계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 행위에는 한시적 삶에 대한 강박관념의 내음, 또는 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간정신이 도달한 최고의 차원이 동시에 함축됨으로써 철저하게 이중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비친다.

「세계의 영웅신화」(조셉 캠벨, 이윤기, 대원사)는 종교와 신화 속에 이름을 붙박고 있는 숭한 神과 영웅의 이야기를 박물관식으로 광범위하게 채집·전시한다는 점에서 우선 시선을 끌기에 족하다.

자료가 제한적이기보다 개방적일 경우, 우선 기대되는 것은 그 보편적 결과를 마련할 수 있으며 보다 핵심적 요소가 무엇인지, 혹은 용이 말한 원형의 상이 어떠한지 등을 추출해낼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쉽게 생각하면 인간의 가장 유일한 진리—“낳았다 살고 죽는다”는 단일한 테마—에 대한 한없는 도전이 낳은 투사적 자취로서 영웅의 일대기에서는 어떠한 치장을 갖는가로 귀착되겠지만, 그들이 왜 다기한 형태의 신화와 영웅을 마련했는가 하는 의문조차 시원하게 답할 수 없었던 게 현실 아니었다. 자연계를 설명하려는 지난한 몸짓같기도 하고 개인을

집단화시키려는 묘한 교의를 내포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한 단정적 서술보다야 비록 산발적인 예와 주문식 대입이라 할지라도 캠벨식의 ‘돌아보기’ ‘나열하기’ ‘뿔아내기’ 수법의 연구 태도는 상당히 설득력있는 공식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겠다.

물론 의미의 해설에 다분히 정신분석학적·구조주의적 체취가 강해 일반의 사회관·이데올로기의 역사에 대한 배려가 희미해지는 흠은 있으나,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상징적 일반화에 이를 수 없다는 그의 고집스런 전제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기도 어렵다.

적어도 그에 의하면 소위 원형적 심상으로 서 영웅의 일반은, 모두 비정상적으로 출생하여 초월적 세계로 자신의 임무를 위해 떠났다가 가혹한 시련 끝에 세상에 화려하게 귀환한다고 한다.

그의 이러한 귀납적 결론은 문화인류학·문학·종교학·철학 등등이 묘한 접점을 이루고 있는 바, 민담연구의 프로프, 종교학자인 멀치아 엘리아데, 통과제의에 선행된 업적을 남긴 반 켄넵 등으로부터 시사받은 것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범세계적 대상에 대한 통합적 해체육구와 현대적 영웅화문제 등의 전개태도는 인문사회 제부문에 참신한 시각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승호

서울 동작구 사당3동 141-208. 동국대 국문과 박사과정

문학예술에의 언어철학적 접근

朴異汶의 「詩와 科學」

박이문교수의 「詩와 科學」(一潮閣)은 문학예술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로서 문학예술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정독하기를 권하고 싶은 책이다.

문학예술에 관한 이론서들은 이미 다종다양하게 도서관과 서점의 서가를 메우고 있다. 그런데 그것들은 대부분이 歐美학자들에 의해 씌어진 것의 번역서거나 편역서이며, 국내 학자에 의해 독창적으로 저술된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실정은 국내의 문예이론이 거의 전적으로 구미 학자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책은 그 사상의 바탕이나 논술의 방법적인 면에서 서양의 그것을 따르고는 있지만 국내 학자에 의해 독창적으로 개발되고 체계화된 문예이론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박교수의 또다른 저서인 「藝術哲學」 「文學 속의 哲學」 등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책은 정확한 용어 구사와 적절한 논증의 제시, 광범하면서도 심오한 통찰에 힘입어 논리의 전개가 명쾌하다. 문예학도들이 번역서를 읽으면서 흔히 경험하는 고충인 애매모호함, 난해함 같은 것을 이 책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고도의 전문이론서이면서도 이처럼 명쾌할 수 있는 것은 박교수의 우리말에 대한 철학적 안목이 깊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은 존재의 대상인 세계의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뿐 아니라 자신의 창조적 활동의 산물인 문화를 보존하고 전수하며 또한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언어라는 상징체계를 발명하여 사용해오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언어

는 곧 상징화된 우주이며 그 구조 자체이다. 그래서 하이데거도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학예술이 언어를 질료로 한 창조적 활동이라는 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불과 최근의 일이다. 「詩와 科學」은 예술, 특히 문학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문제를 바로 이 언어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해석한 책이다.

전반부 제1부와 제2부에서는 문학예술에 있어서의 넓은 의미로서의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시적 언어와 과학적 언어의 기능 및 작용을 밝힘으로써 고찰하고 있으며, 후반부 제3부에서는 언어로서의 예술작품의 의미와 가치 평가의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박교수 자신이 이 책은 “예술작품·예술문학비평에 관한 고찰이란 점에서 ‘예술철학’에 관한 논문이며, 그런 문제를 언어와 관련시켜 고찰한 점에서 하나의 ‘언어철학’, 그리고 예술의 원리를 과학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 가운데서 이끌어내려 했다는 점에서 ‘과학철학’ ‘인간철학’의 일면도 있다”고 밝히고 있듯이, 문학과·비문학도를 떠나 일반 독자들에게 널리 읽힐 가치가 있는 교양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해연

서울 도봉구 쌍문2동 삼익세라믹아파트 113동 1104호

그릇된 사랑이 초래한 파멸

이문열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잉게보르크 바하만의 詩句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를 인용하여 제목으로 채택한李文烈의 작품은 우리 근대사의 얼룩진 한면을 보여주고 있다. 두 주인공—대학졸업 전에 고시에 합격하겠다는 기대 속에서 서울로 올라온 수재 임형빈과 불우한 가정환경, 양공주를 언니로 둔 윤주의 비뿔어지고 추락만을 거듭하는 사랑은 60~70년대의 사회적 상황이 만들어낸 모습이다.

70년대 초에 절정을 보였던 아메리카니즘은 이 땅에서 굶주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마약과 같은 것이었다. ‘위대하고 그리운 땅’으로

표현되는 미국은 마치 아프고 상처입은 자들을 완치시켜주고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는 이들에겐 과거를 잊게 하는 행복의 궁전으로 여겨졌다. 그 열병은 이땅에서 추락하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상처의 흔적만을 남기고 말았다. 그리하여 자학적인 인간 윤주를 낳게 했다.

“그기회의 땅으로 건너가 신데렐라로 다시 태어나는 건데, 이제 꿈쩍없이 이 냄새나는 땅에 발목을 잡고 말았지. 불품없는 땅개와 짝을 지어 구질구질한 삶을 채워나가게 되었지.”

이 부분은 단편적이긴 하지만 미국과 이

땅에 대한 주인공의 생각을 보인다. 이러한 작품의 성격과 두 남녀의 소모적인 만남은 읽는 사람들을 기운빠지고 착잡한 마음을 갖게 한다. 하지만 이 작품이 지금의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추락 속에서 날개를 찾는 방법과 모든 추락하는 것들의 날개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이 소설에서 여주인공은 죽음을 통해서 추락에 종지부를 찍는다. 더구나 임형빈이 쓴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 오히려 행복과 자유를 느낀다. 날개를 찾고 평온을 느끼듯이.

죽음에 의해서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건 너무 잔인한 말이다. 그러기에 여기에서 해결방법이 극단적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진정한 날개를 찾지 못해서이다. 내 생각으로는 추락하는 것의 날개는 진솔한 만남을 통한 올바른 사랑이다. 풍족한 물질적 조건도, 수많은 이방인들도, 결코 자신의 추락을 막아줄

수 없다. 또한 잘못된 사랑도 희망의 빛줄기가 될 수 없다. 올바른 만남은 창조적인 것이다. 그 창조적인 힘은 진흙에 빠져 있는 상대자를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 임형빈과 윤주처럼 두사람이 함께 진흙 속에 빠져버리는 것은 서로의 파멸을 초래할 뿐이다. 이 소설에서의 그릇된 사랑과 극단적인 결말을 통하여 독자가 스스로 진정한 날개를 찾는다면, “위태로운 줄타기 곡예를 하고 있다”고 표현되는 현대인의 정신세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더불어 주위사람들에게도 날개가 되어줄 것이다.

김은선

서울 성동구 중곡 3동 195-32 · 회사원